

치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연령군별 비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지 은
(경남대학교)

장 윤 정*
(경남대학교)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 및 치매에 대한 지식이 치매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으며 나아가, 치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청소년 연령군별로 차이가 있는지 비교·분석하였다. 조사는 경남지역 초·중·고·대학생 1,24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지를 활용한 우편조사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른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치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 본 결과, 치매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대해서는 노인에 대한 태도와 치매에 대한 지식이 초·중·고·대학생 모두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치매에 대한 거부적 태도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치매에 대한 지식, 중학생의 경우 노인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델의 설명력이 높지 않았다. 한편, 청소년 연령군별 영향요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치매에 대한 수용적 태도의 경우 초등학생은 노인에 대한 태도, 중·고·대·학생은 치매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요용어: 청소년, 연령군별, 치매지식, 노인태도, 치매태도

이 논문은 2014년도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장윤정, 경남대학교(jangyj@kyungnam.ac.kr)

■ 투고일: 2016.1.31 ■ 수정일: 2016.3.14 ■ 게재확정일: 2016.3.18

I. 서론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치매노인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2012년 치매노인 수는 약 54만 명이었으나 2030년에는 약 127만 명, 2050년에는 약 271만 명으로 매 20년마다 약 2배씩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보건복지부, 2012). 이에 정부는 2008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치매관리법 시행과 더불어 「제2차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2013년~2015년)」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치매노인 증가로 초래되는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치매는 의학적으로 정신기능(판단, 감정, 기억력, 계산 등)의 일부를 상실하여 자신의 일상적, 사회적 활동에 장애를 주는 질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류황건, 1995). 이러한 치매의 특성 상 치매환자는 의학적 문제, 사회적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제2차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2013년~2015년)」을 통해 치매의 조기발견 및 예방강화, 맞춤형 치료 및 보호 강화, 인프라 확충, 가족지원 및 사회적 소통강화 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치매 및 치매노인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치매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여 사회적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장윤정, 2014).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사회를 맞이한 일본의 경우 치매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국가치매전략 「신오렌지플랜」은 7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그 중 첫 번째 과제가 「인지증에 대한 이해와 계발」이다(厚生労働省, 2012). 이는 치매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비관적」인식을 불식시키고 치매를 보다 「적극적 또는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이를 기반으로 치매노인에게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의 대상에는 일반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치매 인식 및 태도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심리학의 기본적 개념 중에 하나인 태도는 사회복지영역에서 다양한 주제로 연구되었으며 특히, 노인에 대한 태도는 세대 간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해 오래된 학문

적 관심사였다. 최근에는 치매노인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치매에 대한 태도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장윤정, 2014). 사회복지 영역에서 치매와 관련된 연구가 보고된 것은 1990년대부터이다. 초기에는 주로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의 부담감에 관한 연구(문혜리, 1992; 김윤정, 최혜경, 1993; 김태현, 전길양, 1996; 이은희, 1998; 황선영, 장금성, 1999; 유광수, 2002; 양은심, 2004; 유인영, 김명희, 2006; 공은희, 조은희, 송미순, 2009)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치매태도에 관한 연구는 2000년 이후에 보고되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단순히 치매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파악한 연구(한동희, 1994; 김태현, 김상숙, 1999; 조현오, 1999; 오미자, 2002; 윤미정, 2004; 김정아, 고자경, 문숙남, 2006; 용미현, 김은정, 양영애, 2010; 노효련, 허영주, 김효진, 김영준, 2013), 치매태도에 관련된 요인을 검증한 연구(방현령, 2006; 박인전, 최외선, 김애희, 2006; 김정희, 2007; 이영휘, 우선미, 김옥란, 이수연, 임혜빈, 2009; 김경애, 김경아, 성미라, 2011; 황은혜, 김보경, 김해린, 2013; 장윤정, 2014; 하은호, 조진영, 2015; 박수진, 박경숙, 김영지, 2015; 최정용 등, 2015) 등이 있으며, 가족건강성, 노인간호교육, 치매지식, 노인태도 등이 치매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주로 노인, 대학생, 간호사,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령군별로 차이를 본 연구는 거의 보고된 바가 없다. 향후 세대 간 소통을 원활히 하고, 나아가 치매노인에게 친화적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치매에 대한 인식 또는 태도에 관해 심도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 이들이 치매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관련되는 요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요인은 연령군별로 차이가 있는 지 탐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태도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변의 환경을 해석하게 해주고 사회적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지침이 되어 주며, 우리의 경험들을 우리에게 의미 있는 하나의 전체로 조직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하여 태도는 사회심리학에서 중요한 주제중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으며, 최근까지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주제이다(나은영, 1994).

이와 같이 태도에 관한 연구는 오랜 기간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태도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적 관점에 따라 상이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Allport(1935)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Erwin, 2001). 그는 태도를 ‘어떤 대상(사람 혹은 사물)에 대하여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려는 학습된 성향’이라고 정의하였다. Erwin(2001)은 Allport(1935)의 ‘학습된 성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학습된’이라는 의미는 태도가 경험의 결과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태도는 학습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성향’은 태도가 그 대상과 연합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실제 태도의 대상에 대한 반응을 편파적으로 만든다고 가정한다는 의미이다. 즉 태도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 세상을 보는 스키마(Schema)나 모형틀(framework)로 볼 수도 있다고 하였다(Erwin, 2001). 따라서, 태도는 이미 형성된 편파적인 시선 안에서 제한적으로 보게 되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어 태도의 형태가 그 사람이 무엇을 보며 그것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태도의 구조적 측면을 살펴보면,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요소를 지닌다(홍대식, 2002). 인지적 요소(cognitive component)는 태도대상에 대하여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상념과 지식을 말하며, 감정적 요소(affective component)는 태도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모든 감정, 정서들의 평가로서 태도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호오(好惡)적 평가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행동적 요소(behavioral component)는 태도대상에 대한 반응 준비성이나 행동 경향성을 말하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일정하게 행동하려는 의도이다. 결국 태도란 그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감정의 평가에 의해 형성된 틀 안에서

만 일정하게 반응하거나 행동하려는 것이다.

한편, 태도의 형성과정에 대해 Franzio(1996)는 행동 과정, 정서적 과정, 인지적 과정, 동기적 과정으로 설명하였다(홍성열, 2004). 첫째, 행동 과정에 근거한 태도란 과거 행동의 영향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조작적 조건화(skinner, 1953)로 설명이 가능한데 어떤 대상에 대한 부적 혹은 정적 강화가 주어질 때 그 행동의 빈도횟수가 높아지고 이를 수행하면서 태도 또한 형성된다는 것이다. 둘째, 정서적 과정에 근거한 태도란 어떤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은 없지만 단순노출(mere exposure)로도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한다(Zajonc, 1968). 단순노출이란 실제로 보는 경우 뿐 아니라 공중매체(TV 신문)를 통한 간접적인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태도는 합리적 사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 또한 세상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강력한 평가의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셋째, 인지적 과정에 의한 태도란, 앞서 설명한 단순노출효과와 달리 합리적 사고를 거쳐서 태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행동하기 전에 인지적 사고에 의해서 행동의 결과를 미리 생각해 본다는 것으로, 자신에게 미치는 결과와 그 결과들에 대한 손익을 예측(주관적 인지판단)하여 자신의 태도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동기적 과정에 근거한 태도형성은 사람들은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태도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 욕구의 변화에 따라 태도를 적절하게 발달시킨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현재 욕구에 적합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가 이 욕구가 변하면 태도도 변한다(Katz, 1960; Smith, Bruner & White, 1956)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 대상에 대하여 우리의 경험이나 인지적 사고를 통하여 혹은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미 형성된 모형을 안에서만 일정하게 반응하거나 행동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는 그것이 만들어지기까지 상당히 많은 요인들이 서로 얽혀서 하나의 복합체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태도는 변화에 상당히 저항적일 것이며 이로 인해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태도는 향후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청소년의 치매에 대한 태도는 치매노인과의 관계,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수용 및 참여 행동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치매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부터 의학 및 간호학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치매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치매 관련 국내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들의 부양부담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문혜리, 1992; 김윤정, 최혜경, 1993; 김태현, 전길양, 1996; 이은희, 1998; 윤가현, 1998; 황선영, 장금성, 1999; 조명희 등, 2000; 유광수, 2001; 김춘미, 2003; 양은심, 2004; 유인영, 김명희, 2006; 공은희 등, 2009). 이들 연구에서는 가족의 부양부담감에 대해 치매노인의 치매정도, 장애 및 문제행동정도, 일상생활수행능력, 부양가족 동거여부, 가족 상호관계, 부양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사회적지지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윤정 등, 1993; 김태현 등, 1995; 이은희, 1998; 유광수, 2001; 양은심, 2004; 유인영 외, 2006; 송미영, 최경구, 2007; 공은희 등, 2009; 서울특별시치매센터, 2011).

이후, 치매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이애숙, 김한곤, 2003) 치매에 대한 태도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연구는 치매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파악한 연구, 치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연구대상은 대학생, 치매 부양자, 치매시설 조호자, 일반인,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먼저, 치매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치매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차이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한동희, 1994; 김남초, 1999; 김태현, 김상숙, 1999; 조현오, 1999; 오미자, 2002; 윤미정, 2004; 김정아 등, 2006; 김정희, 2007; 이영휘 등, 2009; 용미현 등, 2010; 박건우 등, 2010; 노효련 등, 2013; 황은혜 등, 2013; 하은호 등, 2015).

태도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바탕으로 치매에 대한 태도를 정의하면, 치매에 대한 인지·정서적 반응과 행동적 경향을 말한다. 즉 치매질환이나 치매 노인에 대해 인식하는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과 같은 인지·정서적 태도를 바탕으로 치매에 대한 기피나 접근 의향과 같은 행동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선행연구에 의하면, 치매에 대한 인식 및 태도는 나이가 많을수록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조현오, 1999), 취미생활이나 종교생활에 참여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치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고(김남초, 1999), 중년여성이 남성보다 치매에 대

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치매에 대한 정서적 태도는 남성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 상반되는 양상을 보였다(송영희, 2003). 일반인 대상의 박건우 등(2010)의 연구에서는 치매에 대한 태도를 주관적인 방법인 Q 방법론을 통해 이상주의형, 의무방어형, 현실주의형, 보은형의 태도로 세분화 하였다.

다음으로, 치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 연구에서는 치매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태도, 가족건강성, 노인간호교육 등이 치매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인전 등, 2006; 김경애 등, 2011; 장운정, 2014; 박수진, 박경숙, 김영자, 2015; 최정용 등 19인, 2015; 김근홍, 손덕순, 김효정, 송지원, 2015). 이러한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치매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치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보였다(황선영 등, 1999; 이혜옥, 2009; 김경애 등, 2012, 황은혜 등, 2013). 특히,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치매관리 지식보다 치매질환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애 등, 2012). 치매에 대한 지식이란, 치매관련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치매의 원인 질환, 증상, 예방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분별, 판단하여 자신이 지각한 치매에 관해 아는 지식이다(방현령, 2006). 따라서 치매의 원인, 증상등 질환의 특성을 어느 정도 지각하느냐에 따라 치매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노인에 대한 태도란 노인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개인이 노인에 대해 갖는 신념들의 강도와 반응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박경란, 2001). 특히, 연령은 노인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대부분 청소년기를 기점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바뀐다고 밝히고 있다(이선자, 1989; 이금룡, 2004).

치매에 대한 태도 영향요인을 밝힌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노인에 대한 태도가 치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노인입소시설 케어워커 대상의 장운정(2014)의 연구와 일본의 학생, 지역주민, 개호직원 대상의 金高闊(2010)의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치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운정(2014)의 연구에서 치매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노인에 대한 태도가 치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높이고 있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 외, 치매의 행동적 태도에는 가족의 건강성 요인 중 가족유대감이 높을수록 긍정적

이었고, 치매의 정서적 태도에는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김근홍 등, 2015), 노인간호교육 후 치매노인 실습경험을 한 교육군이 비교육군보다 치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박수진 등, 2015). 이는 노인에 대한 태도의 경우 단순한 접촉이나 경험보다는 친밀감과 같은 경험의 질이 중요하다고(한정란, 2000; 이신숙, 2006) 보고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치매에 대한 긍정적 태도형성을 위한 다각적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치매에 대한 태도와 관련한 많은 연구들의 조사대상자들은 주로 대학생, 치매 부양자, 치매시설 조호자, 일반인, 노인을 대상으로(한동희, 1994; 황선영, 1999; 김정희, 2000; 박인전 등, 2006; 방현령, 2006; 이해옥, 2009; 양경미, 2011; 장윤정, 2014) 하고 있을 뿐 청소년을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는 소수이며 매우 제한적이다. 이들 연구는 일부 중·고등학생을 조사대상자로 했으며 연구목적도 치매에 대한 태도 파악이나 조사 대상자의 기본 속성, 자원봉사경험, 치매에 대한 지식이 치매에 대한 태도와 관계를 입증하는 데 머물러 있다(이들영, 2008; 문기내, 배향선, 2007; 우후남, 2009, 황은혜 등, 2013). 특히, 태도는 이미 형성된 틀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보게 되는 경향성을 지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험과 학습의 반복, 사회적 규범 등에 바탕이 되어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즉 태도는 어릴 때부터의 축적된 경험이나 반복된 학습, 사회적 영향으로 바뀔 수 있는 변화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향후 세대 간 소통을 원활히 하고, 나아가 치매노인에게 친화적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치매에 대한 태도에 관해 심도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의 치매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올바른가에 따라 치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 있으며(황은혜 등, 2013), 이와 함께 노인에 대한 지식이 노인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중의 하나라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장윤정, 2014 재인용). 또한 연구결과가 소수이지만 노인입소시설 케어워커, 학생, 지역주민, 간호직원 등 다양한 대상자를 통해 노인에 대한 태도가 치매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검증한(金高閏, 2010; 장윤정, 2014)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령군별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치매에 대한 지식이 그들의 치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경남지역 초·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만9세~만24세를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설문에 대한 이해정도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5·6학년)에서부터 대학생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본추출은 유의표집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전에 조사 참여에 동의한 학교의 초등학교 290명, 중학생 370명, 고등학생 350명, 대학생 250명이 참여하였다. 설문지는 총 1,260부가 회수되어 98.5%의 회수율을 나타냈다. 회수된 설문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초등학교 288부, 중학교 362부, 고등학교 343부, 대학교 249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도구는 연구자가 구성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은 자기기입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는 2013년 5월에 실시하였으며 설문지의 배포 및 수거는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2. 조사도구

가. 종속변수: 치매에 대한 태도

치매에 대한 태도란 치매질환이나 치매 노인에 대해 인식하는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과 같은 인지·정서적 태도를 바탕으로 치매에 대한 기피나 접근 의향과 같은 행동적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치매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金高 閔(2010)이 개발한 치매에 대한 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수용(6항목), 거부(4항목), 거리감(3항목), 친근감(2항목)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Alpha는 .83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각 문항은 1점에서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하는 치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의미를 의미한다. 문항 중 5, 6, 9, 10, 12, 13, 14, 15번은 의미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역코딩한 후 통계처리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였을 때 Cronbach's Alpha는 .83이었다.

나. 독립변수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으로 성별, 학교, 동거가족형태, 친·외조부모의 사회활동, 친·외조부모의 만남횟수, 노인교육경험, 치매정보습득경험, 치매환자 접촉 경험, 치매환자 접촉 방법, 치매가족 동거 경험, 치매정보습득빈도, 치매정보습득방법을 주로 어디서 얻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2)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에 대한 태도란 노인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개인이 노인에 대해 갖는 신념들의 강도와 반응에 대한 평가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金高閔(2010)이 개발한 노인에 대한 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정서적 측면(5항목), 활동적 측면(4항목), 평가적 측면(3항목)의 3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Alpha는 .9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양극단에 상반되는 형용사를 배치하는 어의분화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였을 때 Cronbach's Alpha값은 .8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3) 치매에 대한 지식

치매에 대한 지식은 치매관련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치매의 원인 질환, 증상, 예방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분별·판단하여 자신이 지각한 치매에 관해 아는 지식을 말한다. 청소년의 치매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金高閔(2010)이 개발한 치매에 대한 지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5항목으로 치매 증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 지식(3항목), 치매와 관련된 행동 및 심리증상(12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Alpha는 .80으로 나타났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로 측정하였으며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정답과 일치할 경우 1점, 일치하지 않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치매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였을 때 Cronbach's

Alpha는 .8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coding)과 오류 검토 작업(data cleaning)을 거쳐 SPSS 18.0 for Window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이 활용되었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조사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 및 치매에 대한 지식, 치매에 대한 태도의 수준을 살펴보고 연령군별로 이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분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치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령군별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먼저, 성별에서는 여자 59.4%, 남자가 40.6%로 나타났으며, 연령군별로는 초등학생 288명, 중학생 370명, 고등학생 350명, 대학생 250명이었다. 조부모와의 동거 유무를 살펴보면 동거가 85.3%, 비동거가 14.7%로 나타나 대부분 부모세대와 거주하는 핵가족 형태의 가족구성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조사대상자의 노인 및 치매관련 경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먼저, 노인과 관련된 교육 경험 유무에서는 73.2%가 노인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매노인과 접촉한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28.0%만이 접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치매가족과의 동거경험에 있어서도 6.7%만이 동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평상시 치매와 관련된 정보를 어느 정도 접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거의 접하지 않음 48.8%로 나타났으며, 치매에 관한 정보는 TV를

통해 얻는다고 답한 학생이 77.7%를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학생들은 노인과 관련된 교육을 받거나 치매노인과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및 치매에 대한 지식과 치매에 대한 태도의 수준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라 노인에 대한 태도 및 치매에 대한 지식, 치매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본 결과 <표 2>와 같다. 노인에 대한 태도는 학년과 노인관련 교육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M=42.39$, $p<0.001$)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a>b>c$), 노인관련 교육경험이 있는 학생($M=41.30$, $p<0.001$)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노인에 대한 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치매에 대한 지식은 성별, 학년, 노인관련 교육경험, 치매노인 접촉경험, 치매정보 접촉빈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여자($M=8.15$, $p<0.001$), 노인관련 교육경험이 없는 경우($M=8.11$, $p<0.001$), 치매노인 접촉경험이 있는 경우($M=7.95$, $p<0.001$), 치매정보 접촉이 가끔 있는 경우($M=8.65$, $p<0.001$) 치매에 대한 지식이 더 높은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초등학생은($M=5.42$, $p<0.001$) 다른 학생들에 비해 치매에 대한 지식이 더 낮은 것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a>b$).

치매에 대한 태도는 성별, 학년, 치매노인접촉경험, 치매정보 접촉빈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자($M=40.57$, $p<0.001$), 중학생($M=41.30$, $p<0.001$)과 대학생($M=40.90$, $p<0.001$)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a>b$), 치매노인 접촉경험이 있는 경우($M=40.44$, $p<0.001$), 치매정보 접촉경험이 한달에 몇 차례 있는 경우($M=41.48$, $p<0.001$) 치매에 대한 태도가 더 높은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1,242)

변수		초등학생 빈도(%)	중학생 빈도(%)	고등학생 빈도(%)	대학생 빈도(%)	빈도	비율 (%)
성별	남	166(57.6)	39(10.7)	138(40.2)	161(64.7)	504	40.6
	여	122(42.3)	323(89.2)	205(59.8)	88(35.3)	738	59.4
조부모 동거	비동거	203(70.4)	315(87.9)	305(89.2)	231(92.8)	1058	85.3
	동거	85(29.5)	43(12)	37(10.8)	18(7.2)	183	14.7
노인교육 경험	있음	60(23.3)	109(31.7)	78(23.2)	70(28.3)	317	26.8
	없음	197(76.6)	235(68.3)	258(76.8)	177(71.7)	867	73.2
치매노인 접촉경험	있음	67(25.2)	93(26.1)	89(27.2)	99(33.8)	348	28
	없음	198(74.7)	264(73.9)	238(72.8)	194(66.2)	894	72
치매가족 동거경험	있음	19(6.5)	21(5.8)	23(6.7)	20(8)	83	6.7
	없음	269(93.4)	341(94.2)	320(93.3)	229(92)	1159	93.3
치매정보 접촉빈도	한달에 몇 차례	46(16.3)	54(15.1)	41(12.4)	51(18.8)	192	15.5
	일년에 몇 차례	42(14.8)	135(37.7)	144(42.5)	124(45.3)	445	35.8
	거의 접하지 않음	195(68.9)	169(58.7)	145(72.1)	96(63.6)	605	48.7
치매정보 습득방법 (복수응답)	TV	183(63.5)	294(81.2)	286(83.4)	202(81.1)	965	77.7
	신문	33(11.4)	101(27.9)	50(14.6)	54(21.7)	238	19.2
	영화	84(29.1)	160(44.2)	65(19)	82(32.9)	391	31.5
	라디오	10(3.4)	18(5.0)	6(1.7)	1(0.5)	35	2.8
	강연회	11(3.8)	18(5.0)	7(2.0)	3(1.2)	39	3.1
	가족	47(16.3)	91(25.1)	31(9.0)	30(12.0)	199	16
	친구	35(12.1)	51(14.1)	24(7.0)	10(4.0)	120	9.7
	복지관	29(10.1)	75(20.7)	28(8.2)	21(8.4)	153	12.3
	인터넷	54(18.75)	108(29.8)	69(20.1)	46(18.5)	277	22.3
	전문잡지	9(3.125)	12(3.3)	3(0.9)	1(0.4)	25	2.0
	수업	31(10.8)	62(17.1)	33(9.6)	15(6)	141	11.4
	기타	0(0)	1(0.3)	1(0.3)	2(0.8)	4	0.3

표 2. 조사대상자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및 치매에 대한 지식과 치매에 대한 태도 수준 비교

구분 (N)	노인태도			치매지식			치매태도			
	M	SD	T/F	M	SD	T/F	M	SD	T/F	
성별	남(492)	39.49	8.24	.001	6.58	4.61	40.255***	39.14	5.70	16.614***
	여(736)	39.51	7.84		8.15	4.05		40.57	6.14	
학교	초(278)	42.33c	9.15	20.212***	5.42a	4.22	32.848***	38.53a	5.87	15.703***
	중(361)	39.82b	8.19		7.76b	3.92		41.30b	6.17	
	고(342)	37.69a	7.06		8.39b	4.41		39.15a	5.75	
	대(247)	38.36a	6.51		8.37b	4.24		40.90b	5.73	
노인 관련 교육	유(317)	41.30	8.15	23.135***	7.49	4.15	4.803**	40.44	6.35	1.841
	무(865)	38.80	7.85		8.11	4.31		39.90	5.88	
치매 노인 접촉 경험	유(384)	39.69	7.99	.299	7.95	4.48	5.823**	40.99	6.29	14.560***
	무(844)	39.42	8.00		7.31	4.28		39.57	5.83	
치매 가족 동거 경험	유(88)	40.34	7.50	.442	8.93	3.88	1.638	41.63	5.78	.640
	무(256)	39.65	8.37		8.25	4.31		40.99	6.48	
치매 정보 접촉 빈도	거의 없음 (591)	39.54	8.57	.818	6.31	4.46	48.362***	38.90	5.67	20.187***
	일년에 몇 차례(445)	39.20	7.29		8.61	4.00		40.82	5.77	
	한달에 몇 차례(192)	40.06	7.72		8.74	3.73		41.48	6.08	

주: a, b, c: Scheffé의 사후검증

3. 노인에 대한 태도 및 치매에 대한 지식, 치매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

노인에 대한 태도 및 치매에 대한 지식, 치매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수 절대 값이 -.064~.214를 나타내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상관관계분석 결과 노인에 대한 태도와 치매에 대한 태도는 정적 상관관계($r=.206,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매에 대한 지식과 치매에 대한 태도도 정적 상관관계($r=214$, $p<0.01$)를 보였다. 즉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치매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을 수록 치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주요변인의 상관관계

구분	노인태도	치매지식	치매태도
노인태도	1		
치매지식	-.064*		
치매태도	.206**	.214**	1

* $p<0.05$, ** $p<0.01$, *** $p<0.001$

4. 치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연령군별 비교

가. 치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연령군별 비교

학생들의 치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델1의 회귀방정식에 의하면 노인에 대한 태도($\beta=.203$, $p<0.01$)가 치매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치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델2의 회귀방정식에 의하면 노인에 대한 태도($\beta=.255$, $p<0.001$), 치매에 대한 지식($\beta=.110$, $p<0.05$), 성별($\beta=.183$, $p<0.001$)이 치매에 대한 태도의 영향요인으로 검증되었다. 즉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치매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남학생보다 여학생일 경우 치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델3의 회귀방정식에 의하면 노인에 대한 태도($\beta=.238$, $p<0.001$), 치매에 대한 지식($\beta=.193$, $p<0.001$), 치매정보 접촉빈도($\beta=.1481$, $p<0.01$)가 치매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도 노인에 대한 태도, 치매에 대한 지식 두 변인 모두 치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더불어 치매에 관한 정보를 자주 접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치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델4의 회귀방정식에 의하면 노인에 대한 태도($\beta = .264, p < 0.001$), 치매에 대한 지식($\beta = .222, p < 0.001$)이 치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의 경우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치매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치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조사대상자별 치매태도 영향요인 비교

변인	모델1(초)		모델2(중)		모델3(고)		모델4(대)	
	β	t	β	t	β	t	β	t
노인태도	.203	2.654**	.255	4.625***	.238	4.308***	.264	4.179***
치매지식	.075	.917	.110	1.998*	.193	3.430***	.222	3.269***
성 별 ¹⁾	-.049	-.631	.183	3.330***	.103	1.842	-.030	-.460
노인관련 교육경험 ²⁾	.055	.691	-.037	-.652	.002	.035	-.002	-.033
치매노인 접촉경험 ³⁾	-.079	-.929	.086	1.497	.099	1.655	.079	1.134
치매정보 접촉빈도	.103	1.227	.097	1.767	.148	2.635**	.013	.199
치매가족 동거경험 ⁴⁾	.000	.006	.136	2.372*	.055	.946	-.091	-1.308
F		2.096		7.358		9.297		4.048
R ²		.084		.148		.168		.110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1), 2), 3), 4)는 가변수(dummy variable)임; 성별(남0, 여1), 노인관련 교육경험(있음1, 없음0), 치매 노인접촉경험(가끔 있음0, 거의 없음1), 치매가족 동거경험(있음0, 없음1)

나. 수용적 치매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연령군별 비교

치매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모델1의 회귀방정식에 의하면 노인에 대한 태도($\beta = .306, p < 0.001$), 치매에 대한 지식($\beta = .296, p < 0.001$)이 치매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치매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치매에 대해 수용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델2의 회귀방정식에 의하면 치매에 대한 지식($\beta=.265$, $p<0.001$), 노인에 대한 태도($\beta=.216$, $p<0.001$), 성별($\beta=.125$, $p<0.05$), 치매노인 접촉 경험($\beta=.113$, $p<0.05$)이 치매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검증되었다. 즉 치매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여자일 경우 치매노인 접촉경험이 있을 경우 치매에 대한 태도가 수용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델3의 회귀방정식에 의하면 치매에 대한 지식($\beta=.209$, $p<0.001$), 노인에 대한 태도($\beta=.226$, $p<0.001$), 치매노인 접촉 경험($\beta=.153$, $p<0.01$)이 치매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치매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치매노인 접촉경험이 있을 경우 치매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델4의 회귀방정식에 의하면 치매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치매에 대한 지식 ($\beta=.308$, $p<0.001$), 노인에 대한 태도 ($\beta=.302$, $p<0.001$), 치매노인 접촉 경험($\beta=.140$, $p<0.05$), 치매가족 동거 경험($\beta=-.140$, $p<0.05$)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의 경우 치매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치매노인 접촉경험이 없을수록 치매가족 동거경험이 있을수록 치매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조사대상자별 수용적 치매태도 영향요인

변인	모델1(초)		모델2(중)		모델3(고)		모델4(대)	
	β	t	β	t	β	t	β	t
노인태도	.306	4.334***	.216	3.953***	.209	3.825***	.302	4.964***
치매지식	.296	3.909***	.265	4.853***	.226	4.078***	.308	4.715***
성 별 ¹⁾	-.007	-.094	.125	2.292*	.088	1.587	-.068	-1.063
노인관련 교육경험 ²⁾	.010	.135	-.031	-.565	-.044	-.807	-.018	-.294
치매노인 접촉경험 ³⁾	-.036	-.457	.113	1.971*	.153	2.608**	.140	2.088*
치매정보 접촉빈도	.036	.469	.050	.918	.013	.233	-.054	-.886
치매가족 동거경험 ⁴⁾	-.111	-1.460	.089	1.572	.028	.491	-.140	-2.102*
F		6.496		8.177		10.508		6.959
R ²		.222		.162		.208		.175

*p<0.05, **p<0.01, ***p<0.001

주: 1), 2), 3), 4)는 가변수(dummy variable)임; 성별(남0, 여1), 노인관련 교육경험(있음1, 없음0), 치매 노인접촉경험(가끔 있음0, 거의 없음1), 치매가족 동거경험(있음0, 없음1)

다. 거부적 치매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연령군별 비교

치매에 대한 거부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델1의 회귀방정식에 의하면 치매에 대해 거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치매에 대한 지식($\beta=-.200$, $p<0.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치매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지 않을수록 치매에 대해 거부적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델2의 회귀방정식에 의하면 노인에 대한 태도($\beta=.185$, $p<0.001$)가 치매에 대한 거부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beta=.147$, $p<0.01$), 치매가족동거경험($\beta=.127$, $p<0.05$)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여자일수록 치매가족 동거경험이 없을수록 치매에 대해 거부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델3의 회귀방정식에 의하면 치매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태도는 치매에 대한 거부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매정보 접촉빈도($\beta=.178, p<0.01$)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치매정보 접촉빈도가 적을수록 치매에 대해 거부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델3에서도 고등학생과 마찬가지로 치매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태도는 치매에 대한 거부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치매에 대한 거부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조사대상자별 거부적 치매태도 영향요인

변인	모델1(초)		모델2(중)		모델3(고)		모델4(대)	
	β	t	β	t	β	t	β	t
노인태도	-.022	-.285	.185	3.255***	.048	.806	.066	.997
치매지식	-.200	-2.388**	-.114	-2.001	.014	.225	-.051	-.709
성 별 ¹⁾	-.055	-.695	.147	2.583**	.033	.541	.019	.267
노인관련 교육경험 ²⁾	.045	.555	-.019	-.326	.035	.587	-.002	-.033
치매노인 접촉경험 ³⁾	-.041	-.475	.014	.235	.007	.103	-.008	-.115
치매정보 접촉빈도	.085	.994	.110	1.932	.178	2.919**	.073	1.095
치매가족 동거경험 ⁴⁾	.111	1.319	.127	2.147*	.061	.960	-.011	-.153
F		1.237		4.108		2.001		.411
R ²		.052		.088		.048		.012

* $p<0.05$, ** $p<0.01$, *** $p<0.001$

주: 1), 2), 3), 4)는 가변수(dummy variable)임; 성별(남0, 여1), 노인관련 교육경험(있음1, 없음0), 치매노인접촉경험(가끔 있음0, 거의 없음1), 치매가족 동거경험(있음0, 없음1)

V. 결론 및 함의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치매노인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치매는 다년간의 만성 경과를 취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망상, 환각, 불안, 배회 등의 주변 증상을 수반하기도

하여 가족이나 사회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어 사회적 편견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나아가 치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연령군별로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군별로 노인에 대한 태도, 치매에 대한 지식, 치매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 결과 노인에 대한 태도는 타 연령군에 비해 초등학생이 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치매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타 연령군에 비해 초등학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치매에 대한 태도에서는 타 연령군에 비해 초·고등학생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초등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치매와 관련된 지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치매에 대한 태도도 상대적으로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것은 초등학생이 주로 접하는 조(외)부모와 친밀한 관계형성의 기회가 많을 것이고, 조(외)부모가 아직 젊은 편이라 신체적 건강의 정돈나 경제적 여유 등에서 긍정적인 인상을 줄 가능성이 높은 것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도 노인에 대한 태도의 경우 단순한 접촉이나 경험보다는 친밀감과 같은 경험의 질이 중요하다고(한정란, 2000; 이신숙, 2007) 보고하고 있으며, 노인에 대한 태도는 아동기에 가장 긍정적이며 점차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이선자, 1989) 연령이 증가하더라도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개입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치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 본 결과, 전체 치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노인에 대한 태도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고·대학생의 경우 노인에 대한 태도와 치매에 대한 지식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치매에 대한 태도를 치매에 대한 수용적 태도와 치매에 대한 거부적 태도로 구분하여 영향요인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치매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대해서는 노인에 대한 태도와 치매에 대한 지식이 초·중·고·대학생 모두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치매에 대한 거부적 태도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치매에 대한 지식, 중학생의 경우 노인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델의 설명력이 높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단순히 치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루었던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치매에 대한 수용적 태도와 치매에 대한 거부적 태도로 구분하여 청소년 연령군별 영향요인의 차이를 탐색한 연구라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한편, 노인시설 케어워커 등 다양한 대상으로 한 金高鬮(2010)과 한일 요양시설 케어워커를 대상으로 한 장윤정(2014)의 연구에서 치매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으로 밝혀진 노인에 대한 태도와 치매에 대한 지식이 본 연구에서도 치매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이와 더불어 이들 요인이 치매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임이 검증된 반면, 치매에 대한 거부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치매에 대한 수용적 태도와 거부적 태도에 영향요인은 다를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치매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치매에 대한 수용적 태도의 영향요인 뿐 아니라 치매에 대한 거부적 태도의 결정요인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치매에 대한 수용적 태도와 관련된 요인들의 영향력은 연령군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생의 치매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있어서는 노인에 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것에 비해 그 외 연령군의 치매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는 치매에 대한 지식이 노인에 대한 태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노인에 대한 태도와 치매에 대한 지식이 청소년의 치매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각 요인별의 영향력은 연령군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치매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올바른가에 따라 치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 있다(황은혜 등, 2013)는 연구결과와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치매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보건복지부, 2008; 조현, 고준기, 2012)할 뿐 아니라 조호 경험 및 교육을 받은 경험의 많음에도 불구하고 치매행동이 심할수록 치매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한다는 연구결과(최정용 등, 2015)를 보여 주고 있다. 이들 연구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들의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변화를 위해서는 연령군별로 차이를 둔 노인 및 치매 관련 수업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청소년들이 노인과 관련된 교육경험이 73.2%는 없고, 치매에 관한 정보는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보다는 대중매체를 통하여 치매에 대한

올바르지 않는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이 올바르지 않는 정보를 습득하게 되어 노인 뿐 아니라 치매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으로 인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형성되지 않도록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청소년 연령별 차이를 고려한 치매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모색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치매나 치매노인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서 지금까지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청소년의 치매에 대한 태도에 공통적으로 미치는 요인과 연령별 주요변인 간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청소년의 치매에 대한 태도 형성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돕고 관련 연구영역을 탐색했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일부 제한된 지역에 한정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반적인 학제(초·중·고·대)를 기준으로 하여 연령군을 분류하였기 때문에 모집단이 모든 청소년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본 논문을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한정된 항목들에 대한 양적 조사결과만을 대상으로 인과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과정과 변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되는(김성일, 2000)것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원칙도의 신뢰도가 비교적 높고 척도개발과정에서 내용타당도나 구성타당도가 검증된 金高淵(2010)의 논문에서 사용된 치매에 대한 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단, 치매에 대한 태도 측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태도의 다차원적 구조(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측면)를 가정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장윤정, 2014 재인용).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적인 한계와 척도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이지은은 경남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현재 (사)느티나무창원장애인부모회에서 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인, 장애인이다.

(E-mail: lg12@naver.com)

장윤정은 일본 오사카부립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인이며, 현재 노인장기요양등 노인관련부문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jangyj@kyungnam.ac.kr)

참고문헌

- 공은희, 조은희, 송미순. (2009).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기족 간호자의 부담감과 간호만족: 문화적, 비문화적 요인. *한국노년학*, 29(2), pp.701-716.
- 김경애, 김경아, 성미라. (2011). 요양보호사의 치매관련 지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62, pp.23-51.
- 김근홍, 손덕순, 김효정, 송지원. (2015). 노인의 가족건강성과 치매태도와의 관계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3, pp.341-365.
- 김남초 (1999). 일부 재가노인의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3, pp.1-11.
- 김성일. (2000). 청소년의 가치관 교육을 위한 태도변화 원리의 응용. *한국청소년연구*, 31, pp.41-87.
- 김윤정, 최혜경. (1993). 치매노인의 장애기간과 부양자의 대처자원이 부양자의 부담 및 부양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3(2), pp.63-83.
- 김정아, 고자경, 문숙남. (2008). 중년 성인의 치매지식과 관련요인. *성인간호학회지*, 18(2), pp.293-303.
- 김정희. (2000). 간호학생의 노인과 치매노인에 대한 이미지 비교. *노인간호학회지*, 2, pp.133-143.
- 김정희. (2007). 간호학사 과정 3학년 학생들의 노인과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8, pp.601-610.
- 김태현, 김상숙. (1999). 노인의 치매 불안 정도 연구 : 부양기대감과 치매인식정도를 중심으로. *생활문화 연구*, 13, pp.145-168
- 김태현, 전길양. (1996). 치매노인 가족의 부양상황과 적응자원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pp.145-160.
- 김춘미. (2003).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대처유형.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4(2), pp.351-361
- 나은영. (1994). 태도 및 태도변화 연구의 동향:1985-1994.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8(2), pp.3-33.

- 노효련, 허영주, 김효진, 김영준. (2013). 치매에 관한 대학생들의 인식 및 태도에 관한 Q-방법론적 접근.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2, pp.301-317.
- 류황건. (1995). 한국의 노인성 치매에 관한 일반적 고찰. 보건과학연구소보, 5, pp.87-91.
- 문기내, 배향선. (2007). 중학생들의 치매에 대한 지식수준 및 학교보건교육의 필요성.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60, pp.211-224.
- 문혜리. (1992). 가정내 치매노인간호자부담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6(2), pp.108-132.
- 박건우, 김지연, 박문호, 최문기, 정재범. (2010). 노인성치매에 대한 태도 유형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지, 11, pp.3700-3706.
- 박경란. (2001).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및 태도. 인제논총, 16, pp.207-229.
- 박수진, 박경숙, 김영지. (2015). 노인간호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치매정책 인식에 미치는 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 16(7), pp.4467-4477.
- 박인전, 최외선, 김애희. (2006). 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태도와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부모교육연구, 3, pp.27-49.
- 방현령. (2006). 가정봉사원의 치매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 보건복지부. (2012). 제2차(2013~2015)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 서울: 보건복지부.
- 서울특별시 치매센터. (2011). 서울시민대상 치매인식도 조사. 서울: 서울특별시 치매센터.
- 송미영, 최경구. (2007). 치매노인 주부양자의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37, pp.131-160.
- 송영희. (2003). 중년의 치매에 관한 인식과 태도: 사·오십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 양경미. (2011).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요양보호사 교육생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양은심. (2004). 치매노인 가족의 부양부담과 지역사회자원 활용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개발 연구, 41, pp.235-265.
- 오미자. (2002). 한국 사회에서 치매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용미현, 김은정, 양영애. (2010). 치매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지식수준 조사 연구. 한국고령친화건강정책학회지, 48, pp.345-362.

- 우후남. (2009). 노인성 치매에 관한 청소년의 인식과 태도 연구: 경기도 안양, 안산, 부천시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삼육대학교.
- 유광수. (2002). 노인성 치매환자를 간호하는 가족의 부담감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간호학
회지*, 15, pp.125-147.
- 유인영, 김명희. (2006). 치매노인 부양자의 부양부담감 영향요인. *노인간호학회지*, 8(1),
pp.47-57.
- 윤미정. (2004). 치매에 대한 지식 및 신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삼육대학교
- 윤기현. (1998). 노인성 치매환자의 주 부양자가 지각하는 심리적 부담 및 부양의무감의
비교 문화적 연구. *한국노년학*, 18(1), pp.75-90.
- 이금룡. (2004). 연령별 노인에 대한 태도 비교를 통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전략적 방안
모색. *노인복지연구*, 26, pp.143-164.
- 이들영. (2008). 치매에 대한 청소년의 지식과 태도.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이선자. (1989). 각 연령별로 본 노인에 대한 태도의 심리학적 고찰. *한국노년학*, 9,
pp.79-91.
- 이신숙. (2006). 대학생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가 조모와의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6(3), pp.479-490.
- 이은희. (1998). 치매노인 부양가족원의 부양부담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2),
pp.211-239.
- 이애숙, 김한곤. (2003). 치매노인 부양자의 부양부담 실태 및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과 사회과학*, 13, pp.29-60.
- 이영희, 우선미, 김옥란, 이수연, 임혜빈. (2009). 저소득층 중년여성의 치매 지식, 태도,
자기효능과 예방 행위와의 관계연구. *성인간호학회지*, 21(6), pp.617-627.
- 이혜옥. (2009). 노인시설 종사자들의 치매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석사학위논문, 충남대
학교
- 장윤정. (2014). 치매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에 관한 한일비교. *한국노년학*, 34(2),
pp.333-348.
- 조명희, 권오정, 최정신. (2000).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부양부담과 개선방안. *노인복지연
구*, 9, pp.33-65.
- 조현오. (1999). 치매에 대한 일반인의 지식과 태도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조현, 고준기. (2012). 치매노인의 현황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개선방안.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3(12), pp.5816-5825.
- 주경복. (2009). 치매노인 가족의 소진 구조모형.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최정용, 최정용, 정현, 박재영, 김태희, 이동영 등. (2015). 지역사회 치매 조호자들의 치매에 대한 태도의 연관 인자 연구. *대한노인정신의학*, 19(1), pp.24-31.
- 하은호, 조진영. (2015). 요양보호사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교육요구도 분석.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1(1), pp.108-118.
- 한동희. (1994). 노인의 치매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4(1), pp.69-83.
- 한정란. (2000).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3), pp.115-127.
- 홍대식. (2002). *사회심리학*. 서울: 청암미디어.
- 홍성열. (2004). *사회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황선영, 장금성. (1999). 치매시설 조호(助護)자의 치매에 관한 지식, 태도 및 조호활동실천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1, pp.378-388.
- 황은혜, 김보경, 김해린. (2013). 청소년의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 *재활간호학회지*, 16(2), pp.133-140.
- 金高閻. (2010). 認知症の人に対する態度に関する研究. 博士論文, 大阪府立大学大学院 厚生労働省. (2012). 社会保障審議会 介護保険部 会報告書(第45回). 介護人材の確保関係料資.
- Allport, G. W. (1935). Attitudes. In C. Murchison(Ed), *A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Worcester, MA: Clark University Press.
- Banaji, M. R., & Greenwald, A. G. (1994). Implicit stereotyping and prejudice. In M. P. Zanna & J. M. Olson (eds.), *The psychology of prejudice; The Ontario Symposium*, 7(3)(pp.55-76).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Erwin, P. P. (2001). 태도와 설득(고은경,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서출판 2001).
- Franzoi, S. L. (1996). *Social Psychology*. Madison: Brown and Bench mark.
- Katz, D. (1960). The functional approach to the study of attitudes. *Public Opinion Quarterly*, 24, pp.163-204.
- Smith, M. B., Bruner, K. S., & Whie, R. W. (1956). *Opinions and Personality*. New

York: Wiley.

Skinner, B. F. (1953). *Sciences and Human Behavior*. N. Y: Free Press.

Zajonc, R. B. (1968). Attitudinal effects of exp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 pp.1-29.

A Comparative Study of Factors Affecting Adolescents' Attitudes towards Dementia

Lee, Ji Eun
(Kyungnam University)

Jang, Yun Jeong
(Kyungnam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assess the effect of adolescents' attitudes towards the elderly, as well as their knowledge about and attitudes towards dementia and to make a comparative analysis of differences in factors affecting attitudes of different ages groups of adolescents towards dementia. We conducted a mailed questionnaire survey of 1,242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college students in the Gyeongnam region. The key outcome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while the attitudes towards the elderly was found to be more positive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an in middle-and-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the level of knowledge about dementia was found to be relatively lower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Meanwhile, adolescents' attitudes towards dementia were less negative in middle school and college students than in elementary and high school students. Secondly, Both attitudes towards the elderly and knowledge about dementia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receptive attitudes towards dementia in students of all age groups. On the other hand, knowledge about dementia was an effect on rejective attitudes towards dementia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ile attitudes towards the elderly were an effect on the rejective attitudes of middle school students toward dementia. However,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 was not sufficient.

Keywords: Adolescents, Age Group, Knowledge on Dementia, Attitude Towards Elderly, Attitude towards Dementia